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2(土)	3(日)
호리고비 26/32℃	비후경 25/29℃

**News**

- 7월 물가 5.9% 급등 ②
- 교사가 독도 지도안 제작 ③
- 한국선수단 베이징 입성 ⑧

**Books**

- 반갑다, 로마史 완역본 ⑭

**Entertainment**

- 피서는 '애니메이션'과... ⑧
- 70년대 유행음악 귀환 ⑨



**Wellbeing**

- 식품 탐구 - 쌀 ⑬



美 스미소니언 박물관 전시 고려청자 만든 도공 조유복씨

## “강진청자는 이미 세계명품 사랑받는 생활자기 빛고파”

국내 유일의 관요(官窯·가마)인 강진청자사업소에서 22년째 고려청자를 빚고 있는 조유복(46) 조각실장은 요즘 하루해가 짧기만 하다. 삼복더위쯤은 별것 같게 가마를 달구는 장작불로 날려 보낸다. 조각도를 든 그의 손길은 땀방울이 적실 틈도 없이 날렵하게 화을 새겨간다.

“너위요? 그런 것 몰라요. 청자문화제 준비해야 하고, 미국 순회전시회 다녀온 것도 마무리해야 하고...”

강진 청자문화제(9~17일)를 일주일여 앞둔 1일 강진청자사업소의 작업장은 부산했다. 18명의 도공이 물레를 돌리고, 유약을 바르고, 조각을 하느라 정신이 없다. 청자문화제 개막날인 오는 9일 오후 5시 화북 가마에 불을 넣는데, 여기에 들어갈 ‘청자삼강문화문매병’ 10점에 화을 새기는 것이 온전히 그의 몫이다. 매병 당 60마

리니, 모두 600마리를 과 넘어야 하는 힘들고, 조심스런 작업이다.

하지만, 올해 청자문화제를 준비하는 그의 손길은 그 어느 때보다 자신에 차 있다. 지난 1986년 도공의 길로 들어선 후 22년이 지난 요즘에서야 ‘길’이 보이기 시작한 탓이다.

“미국에서 인정했으니까, 세계가 고려청자를 인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5월9일부터 65일간 미국 워싱턴DC 등 6개 도시에서 열린 ‘천년의 얼굴’ 강진 고려청자 순회전시회에서 3만명의 관람객, 5천만원 상당의 판매 등을 기록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특히 조실장이 만든 국보 68호 재현품인 ‘청자삼강문화문매병’ 2점은 미국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에 영구 전시되는 영광을 안았다.

조실장은 이를 고려청자 세계화의 출발점으로 본다. 강진군도

이번 전시회의 성공에 힘입어 내년에는 프랑스, 포르투갈,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 6개국 순방에 나선다.

“고려청자 재현도 중요하지만, 실생활에서 보다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과 아이디어 상품이 나와야 합니다. 요번 청자문화제에서는 그런 작품들도 선보일 겁니다.”

조실장은 이미 각종 그릇류와 다기류 등 기본적인 것들은 완성작을 내놓은 상태. 좀 더 다양한 생활용품과 바다 타일 등 최고급 건축자재도 만들어 볼 생각이다.

“강진청자 홍보대사로 위촉된 세계적 패션 디자이너인 앙드레 김 선생님이 청자문화제를 보러 온다니, 벌써 잠이 안 옵니다.”

그는 앙드레 김에게 고려청자에 현대적 감각의 근사한 옷 한 벌을 입혀달라고 할 작정이다.

/김진=박진표기자 lucky@



조유복 강진청자사업소 조각실장이 국보 68호 재현품인 ‘청자삼강문화문매병’을 가마에 넣기 전에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다.

## “화성에 물 있다”

NASA, 공식 확인

미 항공우주국(NASA)은 지난달 31일 탐사로봇 피닉스가 화성의 토양 샘플에서 물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NASA의 과학자들은 이번 주초 피닉스가 채취한 화성의 토양 표본에 열을 가하는 화학실험을 실시해 화성에 물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됐다고 말했다.

피닉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윌리엄 보인톤 애리조나대 교수는 “우리가 물을 찾았다”며 “과거에 ‘마스 오디세이 오비터’로 화성에 열음 층이 존재한다고 증거를 보기는 했지만 (피닉스를 통해) 화성의 물을 직접 만지고 느껴보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과학자들은 2002년 화성 궤도탐사선 마스 오디세이 오비터의 관측 결과를 토대로 화성의 북극 표면 바로 아래에 광범위한 열음 층이 있을 것으로 추정해왔다.

피닉스는 지난 5월 25일 화성에 착륙해 표면에 5~6cm 깊이의 도랑을 파면서 토양 표본을 채취했으며, 이 과정에서 표면 바로 밑에서 열음으로 보이는 흰 물체들을 찾아냈다.

/연합뉴스

## 시설·축산농 소득, 작년의 3분의 1로 감소

■ 농림수산물부 ‘농어가 경제동향’ 보고서

### 면세유·사료가격 급등 여파 생산비 부담 커져

면세유와 국제 사료 가격 급등 여파로 생산비 부담이 커지면서 올해 시설·축산농가 소득이 작년보다 3분의 1 이상 줄어든 것으로 전망돼 농촌 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됐다.

1일 농림수산물부의 ‘농어가 경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1당 각각 651원, 503원 수준이던 농업 및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지난 6월 평균 1천276원, 990원으로 96%가 올랐다.

복합비료는 20kg 한 포대에 9천850원에서 2만2천원으로 123%, 배합사료의 경우 1kg당 335원에서 436원으로 30% 급등했다.

이에 따라 비닐하우스 등 시설 작목 농가의 경우 지난해 대비 39% 줄어든 10a당 연간 488만2천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 농가의 소득 감소 폭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료 값 폭등으로 소 1마리를 키우는데 필요한 경영비는 12%(409만9천원→458만원), 돼지의 경우 17%(19만원→22만2천원) 늘었다. 이에 따라 소 사육 농가의 마리당 소득은 145만9천원에서 97만8천원으로 33%, 돼지의 5만6천원에서 2만4천원으로 57% 급감할 전망이다.

닭의 경우도 경영비가 25%(1만2천원→1만5천원) 늘어 순 소득은 2만8천원에서 5천원으로 82%나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쌀 농가의 소득도 10a당 49만원에서 45만6천원으로 7% 정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국민총소득 세계 순위 ‘뺨걸음질’

작년 GNI 9,558억달러 13위

지난해 우리나라의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세계 13위로 전년보다 한 단계 하락했다. 경제 규모(국내총생산 기준)는 세계 13위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1일 세계은행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7년 기준 우리나라의 명목 GNI는 9천558억 200만달러로 비교대상 209개 국가 가운데 13위에 랭크됐다.

2006년 13위였던 러시아가 지난해 11위(1조709억9천900만달러)로 2단계 뛰어오르면서 우리나라가 밀려났다.

한국의 명목 GNI는 2005년 7천669억달러로 11위를 차지했으나 2006년에는 8천566억

달러로 12위로 처지는 등 해마다 뺨걸음치고 있다.

세계은행은 1인당 GNI가 가장 많은 국가로 유럽 중부의 리히텐슈타인, 그 다음으로 버뮤다(통계 미제공)로 추정했다. 3위는 노르웨이(7만6천450달러), 4위 룩셈부르크(7만5천880달러), 5위는 카타르(통계 미제공), 6위는 스위스(5만9천880달러), 7위 덴마크(5만4천910달러) 등이다.

미국은 15위(4만6천40달러), 일본은 25위(3만7천670달러)에 이름을 올렸다.

각국 화폐의 구매력을 따진 구매력평가(PPP) 환율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한국의 1인당 GNI는 2만4천750달러로 48위를 차지해 전년도의 50위보다 상승했다.

/연합뉴스

유망직업 전망 55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수세기소라·세기보청기

1588-8426 / 062-222-8111

062-5370-9318